

북한의 일상생활 그린 考現學的 세밀화

주강현 지음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북한사회를 슬로건처럼 요약하자면, '정치 일색의 단세포적 생명체'일 것이다. 야유회까지도 일제 '조직'되고, 판소리 전승도 '전투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도둑처럼 닥쳐올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북한이해 역시 정치적 슬로건의 범주를 크게 넘어 서지 못한다는 데 있다. 내년으로 분단 50주년 되는 그 저주받을 시간이 깎아놓은 거리인 셈이다. 일상생활의 풍요한 육체를 음미할 만한 자료가 드문 것이다.

북한민속학자 주강현씨(민속문화연구원실장, 40)가 상재한 「북한의 민족생활풍습-북한생활풍습 50년사」는 북한인민의 먹고 자고 놀고 싸는 일상을 과학적(학문적)으로 정리한 노작이며 역작이다. 노작이라 함은 발 한짝 들여 놓지 못한 금단의 땅을 대동여지도의 김정호처럼 그려냈음을 뜻한다. 당대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그 세밀함의 정도는 북한학자도 놀

랄 '세밀화'라 여겨질만큼 考現學적 탐구의 산물이다. 과학의 싸늘함 속에서도 저자의 분단아픔 통일열망을 저며 넣은 그 문장은 진국 이어서 또한 역작이다.

이 고현학적 세밀화는 장편소설이 보여주는 구체적이고도 총체적인 삶과 생활을 그려낸다. 한 도저한 스타일리스트가 박태원의 소설 「천변풍경」을 말하면서 "우리는 항일이나 친일만을 하면서 일제 36년을 통과해 온 것은 아니리라"고 영탄했듯이,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역시 똑같이 영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북한의 생활사를 의식주·명절·혼상제·민속놀이·여가생활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낱낱이 정리하는 가운데 북한의 풍경을 여실히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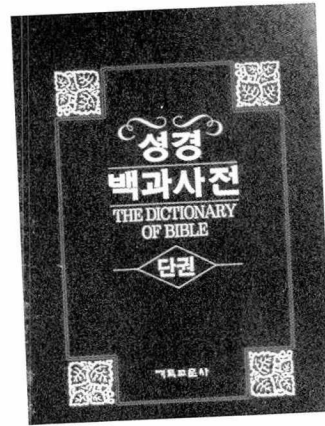
과연 민족생활풍습에서 동질성보다 이질화가 더 많은 것일까. 저자는 서문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아니다'로 정리된다"고 말했다. "생선값 한푼을 깎고, 계돈을 꼬박꼬박 내고, 오입을 하고, ... 자질구레한 아동다육속에서도 세월(일제시대)은 흘러"갔듯이, 분단50년의 북한도 그렇게 흘러갔음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그리하여 방북을 저질렀던 한 소설가의 방문기 제목말마따나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느끼게 한다.

남한 민속학자가 쓴 최초의 이 북한생활사는 그러나 도발적이거나 감상적이지 않다. 남북 교류·교역의 실무자·경제인에게는 북한 현실 분석자료로서, 관련학과 연구자·학생들에게는 기초교재로서 이용돼도 손색없을 것이다. 최근의 풍속도를 집대성한 도표·도면·사진 등도 볼 만하다.

대동/A5신/670면/20000원

평신도와 초보자 위한 성경학습 지침서

기독교문사 펴냄 「성경백과사전」



피난지 대구에서 조그만 책방으로 문을 연 기독교문사가 4개 성상의 연륜을 쌓으며 한국 기독교 관련사전 편찬의 聖所로 자리잡고 있다. 그 출판사는 지난 85년 한국교회 1백주년을 기념하는 「기독교대백과사전」(전16권)을 내놓은 것을 필두로 다양한 형태의 사전류를 펴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새사전」(전3권, 1만6천 항목), 「단권 기독교백과사전」, 「기독교사전」(1만 항목) 등이 그것이다. 그 사전들은 「기독교대백과사전」이 갈릴리 호수라면 거기서 발원하는 시냇물들이다. 방대한 「대백과사전」을 각 주제별로 독자층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간 「단권 성경백과사전」 역시 한 지류이다. 「성경」 초심자를 위한 길잡이사전인 이 책은 「대백과사전」에 수록된 「성경」 관계항목이 요약돼, 평신도 내지 기독교 초보자들의 「성경 연구 지침서」 역할을 분담받았다. 그러

나 「대백과사전」의 성경 관련항목 '分冊'이라면 출간의의는 가뭇속의 마른 냇가처럼 삭막할 터이다. 이 사전은 「대백과사전」의 성경항목 보완·증보관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화보·자료를 수록해 자체완결적인 독자성을 거뜬히 획득하고 있다. 기독교문사 대표 한영제씨는 간행사에서 편찬동기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밝혔다.

그 첫째와 둘째는 각각 「기독교대백과사전」의 성경 관계항목이 길고도 어렵다는 것. 따라서 「성경」 이해·연구의 길잡이책·지침서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셋째, "아쉬움이 없는" 성경백과사전의 출간이 아쉬웠다는 것. 9천6백 항목을 수록해서 없는 말이 없도록 하고, 그것을 단권에 실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각 표제어에 대해서는 漢字,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표기된 뒤 설명이 이어진다.

"부모: 신약성경의 전형적인 용어. 그러나 구약성경에도 부모와 자녀들간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출 20:12) 순종하고 존경해야만 했다(레 19:3; 신 5:16). ... (중략) ... 한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재물을 저축해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했다(고후 12:14; 엡 6:4; 골 3:21).

"살인(자): 노아시대 때부터 살인에 대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사형이다(창 9:6).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 고대 셈족의 관습인 피의 보복이 행해졌다. 즉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를 찾아 죽이도록 되어 있었다(민 35:19). (후략)"

기독교문사/B5/1130면/45000원

왜 「출판정보」가 필요한가?

독자가 원하는 책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는 출판사, 독자의 입맛에 맞는 책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서점, 자꾸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도서관과 출판정보에 까막눈인 독자... 이래 가지고는 국민소득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출판문화를 바로잡고, 출판 후진국의 불명예를 벗어던지기는 틀린 노릇입니다.

"내용은 훌륭한 책인데, 독자의 반응이 없다"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출판사도 독자도, 그리고 지역의 독서상담역인 도서관도 서점도 책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궤야야 보배라고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과 함께 독자의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출판공동체를 위한 종합정보자료집 「출판정보」가 책임지겠습니다.

◆발간형식: 주2회 2권(매주화, 금) ◆판형 및 분량: 4*6배판, 매권 110여쪽 ◆회비: 3개월 10만원, 6개월 18만원, 1년 30만원 ◆연락처: 전화 271-0494/5 팩스 277-7301 ◆담당자: 최은선(편집기획팀) ◆발송방법: 택배 및 우편발송 ◆직접 책을 보고싶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샘플북을 보내드립니다. ◆5월과 6월에 가입하시면 사외보주소록 DB를 보내드립니다.

주2회 2권

출판정보

경제성장 주역 '장관급 행정가' 연구논문

이종범 엮음 「전환시대의 행정가」



토사구팽당했던 某정치인이 이번에는 새 정부의 정치개혁 양상에 대해 吹毛求疵라 요약했다. 털을 훑을 불어가며 안보이는 약점을 구태여 찾아낸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열전'의 속성중 하나는 깎아내리기 인물誌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불만한 '인물책'이 드물다. 자서전이라면 영웅을 자신의 초상화로 그려내는 몰염치들이 눈에 거슬리곤 한다. '타서전'이라면 그야말로 취모구자하기 일췌이다.

최근의 예만 하더라도 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 한국의 경제개발을 주도했던 행정가들에 대한 연구서인 「전환시대의 행정가-한국형 지도자론」에 의하면, 대통령에 관한 연구는 "종종 있었지만 '행정주도형 경제성장'의 주역인 장관급 행정가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책은 현직 공무원들이 선

정한 7인의 훌륭한 행정가들을 7인의 학자들이 맨투맨 밀착마크를 통해 연구한 논문모음집이다. 그 논문들의 문제들과 연구방법론을 서술한 서론과, 논문의 성과를 통해 '전환시대의 한국형 행정가像'을 제시한 결론이 책의 앞뒤를 꼭 조여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70년대까지는 업무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과 행동력을 지닌 행정가가 유능한 행정가로 인식되었다. 비록 독선적이기는 했지만 한국의 경제기획포트를 조성했던 김학렬 前경제기획원 장관, 서울시장과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정열의 화신 김현옥씨, 과학기술의 복음을 전파한 최형섭 前과기처 장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던 김준 前새마을지도자 연수원장 등이 그들이다.

안정과 분배에 좀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80년대부터는 대화와 협조 분위기를 강조한 설득형 행정가의 장점이 발휘됐다. 80년대 초 경제자유화의 기수였던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권위주의 시대에 반권위주의적 행동으로 설득력을 제시했던 고건 전 서울시장, 80년대 통신향명을 지휘했던 오명 전 체신부 장관 등이 꼽혔다. 이 책의 엮음이 이종범 교수(고려대 행정학과)는 차세대에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존시킬 수 있는 시민형 행정가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7인의 행정가가 모두 前職이라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나남 / A5신 / 370면 / 12000원

인류문화의 보편적 상징체계 해설사전

가치 펴냄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Pen 펜 크리스토프: 펜은 학식, <4복음서 기록자들>을 상징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베르나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지이다. 이집트: 자루가 달린 펜은 영혼의 각성을 나타낸다. 테우트(토트)신과 로기오스 신의 상징이다. 이슬람교: 칼라무스(calamus)라고 불리는, 갈대로 만든 펜은 제1질료의 명판에 수명을 써넣는 보편적 지성과 <본질>을 상징한다. 결국 펜은 현현(顯現)되지 않은 물질에 형상과 운명을 부여한다. 펜이 책과 함께 놓이는 경우, 활동적인 창조행위와 정적인 창조의 소재를 상징한다. 펜은 <빛>으로부터 처음 창조되었으며, 남성원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상상의 화약고이자 문화유산의 농밀한 양극인 상징.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은 수천년 인류문화의 상징체계를 1천5백여 표제어로 해설한 사전이다. '물론' 번역물이 다. 우리나라가 18번째이다. 영국의 저명한

비교종교학자 진 쿠퍼의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1978, 런던)을 탁월한 번역가 이윤기씨가 옮겼다. 재작년말 출간된 「한국문화 상징사전」(동아출판사)와 짝지어 서가에 꽂아놓으면, 환상의 상징사전 복식조가 될 성싶다.

「세계문화상징사전」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인류가 공유하는 해석을 우선 고집어낸 뒤, 각 문화권의 전통속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해석을 좇는다. 따라서 일반적·보편적 상징체계와 더불어 각 문화전통 주체의 고유하고 특수한 해석을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제어는 "원뜻을 생생히 전달키 위해" 영어 알파벳 순으로 실었고, 권말에 가나다 순으로 색인을 작성해냈다. 원서에는 210개의 흑백도판이 수록됐음에 비해 이 번역본에는 450장의 도판이 실렸다. 그 240여 흑백·원색 도판의 대부분을 가지에서 자체 수집·수룩했다는 점이 큰 자랑이다. 출판사의 자랑이 아니라 원본보다 나은 번역본을 보게 된 우리의 자랑인 것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상징체계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중 몇가지 인용문을 재인용하자면 이렇다. "상징에 대한 무관심은 개화의 증좌도 아니요, 정신성의 징표도 아니다. ... 불건강의 징후일 뿐". 엘리야데는 상징체계의 회복을 "문화적 국지주의, 특히 역사적·실존적 상대주의로부터 현대인을 구원하는 기회"로 파악한다. 한편 역자는 이 사전의 증보·개정판을 약속했다. 상징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므로 증보를, 번역은 오류가 있기 마련이므로 개정용.

가치 / A5신 / 512면 / 15000원

전화 한 통화가 뜻밖의 결과를 만든다?

출판을 하시고자 합니까? 좋은 원고는 있는데 책으로 출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책으로 엮을 만한 삶의 경험이나 자료는 있는데 집필을 하실 수 없어 망설이시는 않으십니까? 더욱이 문화적으로는 이 땅에 꼭 필요한 도서가 될 터인데 요즘 같은 출판불황 속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하겠다는 곳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렇다고 직접 출판을 하거나 예상되는 시간과 경비의 손실을 걱정하시진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저희와 상담해 주십시오. 기획에서부터 제작 영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접출판의 효용성을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뜻밖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탁전문출판사 **출판미디어** TEL : (02)730-2516 FAX : (02)738-2836

BOOK COVER DESIGN의 모든것을 창조적인 감각으로 해결해 드리는 디자인센스!
-프리랜서 정혜연(작업실 TEL/364-9157, 호출/012-246-3949)

新
刊

국내의 사진공모전에서 20회이상 입상한 중견작가의 사진세계

순간을 예술로

Photographer 이태연 지음

사진촬영에 관한 기본이론과 실재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쉽도록 엮은 사진촬영 지침서입니다.

- 사진촬영의 실제(32면, 33컷) : 가족사진/기념사진/풍경사진/생태사진 촬영방법을 견본사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함.
- 사진감상(76면, 93컷) : 풍경/이벤트/작품사진/해외여행 기록사진 등에 주제, 촬영기재, 일시, 장소 등을 상세히 수록함.
- 사진학개론(16면, 4컷) : 사진의 기본 개념/카메라, 렌즈, 필름에 관한 일반상식/촬영에 필요한 기본상식/작품사진을 만들기 위한 연구내용 등을 수록함.
- 책의 구성 : 크기 26×18.5cm(세)/표지포함 144면/표지250g·내지 150g 아트지/사진 132컷/칼라올셋인쇄/가격 12,000원

◆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 문의처 : (02)551-4266(이태연) (0342)703-2156